

서울대병원, 진료비 신용카드 받아

응급실에만 국한되던 병원의 신용카드 사용이 치료비와 입퇴원비, 외래 진료비, 건강 검진비로 확대되고 있다.

비씨카드와 서울대병원은 9일부터 서울대병원의 모든 진료비를 카드로 수납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8. 9〉

산전 진찰의 의보 혜택 초음파 · 기형아 검사 제외

내년부터 임신부의 각종 진찰과 소변, 혈액, 풍진항체검사 등에 대해 의료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산전 진찰의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 신청한 국고 보조금 1백27억원을 기획예산위가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부들은 산전 진찰을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 2천원을 넘으면 의원에서는 총 진료비의 30%, 병원에서는 40%, 종합병원에서는 55%만 내면 된다. 만약 총 진료비가 1만 2천원을 넘지 않으면 의원급의 경우 3천2백원을 내야 한다.

여권대 산모가 의원에서 처음으로 진료(초진비 6천6백원)를 받을 때 풍진검사(2만5천7백80원)와 혈액검사(2만3천9백30원)를 했다면 총 진료비 5만6천3백10원 중 30%인 1만6천8백90



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또 현재 3백30일인 의료보험 적용 기간을 3백65일로 늘리기 위한 예산 37억원도 확보, 내년부터 일년 내내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초음파와 기형아 검사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경제 8. 7〉

침수 피해 자동차 정기 검사 석 달 유예

서울시는 지난 달 31부터 3일까지 계속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에 대해 정기 검사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지난 달 31일부터 4일까지의 집중 호우 기간에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다.

유예 기간은 11월 4일까지 3개월이며 수해지역의 읍·면·동장 및 경찰서장, 소방서장 또는 수해 지역의 재해대책본부에서 침수 사실을 확인한 서류를 검사소에 내면 된다.

〈한겨레 8. 9〉

오전 1~3시 사이 화재 발생 특히 조심

9일 서울시가 펴낸 '재난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 해 서울에서 발생한 7천5백11건의 화재 중 11.7%에 해당하는 8백80건이 오전 1~3시에 일어났다. 이는 시간대별 화재 발생 건수 중 최대치.

화재 발생 원인별로는 합선 등 전기로 인한 경우가 2천9백10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담뱃불(1천4백39건), 방화(8백55건), 가스(8백38건)의 순으로 많았다.

교통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9월이었다. 지난 해 서울의 총 교통 사고 발생 건수(4만2천55건) 중 9.7%인 4천59건이 9월에 일어났고 사망자 수도 53명으로 월별 최대였다.

〈동아일보 8. 10〉

소보원 단신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족발, 식중독균 검출돼 문제 있어

서울YWCA 소비자개발센터는 서울 시내 대형 백화점 식품매장 및 스낵 코너에서 판매되는 족발을 구입, 대장균과 대장균을 비롯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안전성 시험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뢰했다.

족발의 대장균 검사 결과

총 25개 제품 중 전체의 68%인 17개에서 많게는 1g당 1천2백만(그랜드백화점의 즉석 족발)에서 적게는 1백40(경방필백화점의 주원식품)에 이르기까지 다량의 대장균군이 검출돼 위생 상태가 매우 불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g당 1백만 이상 검출된 백화점과 즉발 제조원은 그랜드신촌점의 금강식품(7백10만), 현대신촌점의 유정종합식품(2백50만), 미도파 제기점의 재경왕족발(1백50만) 등 3곳의 백화점으로 전체의 12%로 나타났다.

대장균은 25개 제품 중 뉴코아 반포점의 금강식품·애경백화점의 좋은식품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위생법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중독 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살모넬라균은 25개 제품 중 애경백화점의 좋은식품 1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병원성 리스테리아균은 미도파 제기점의 재경왕족발 1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시험검사소 미생물시험팀〉

캔 음료·과일 통조림의 중금속 기준보다 낮아 안전한 수준

99년 7월 하순 모 일간지에 탄산·과즙·차 등의 캔 음료와 과일 통조림에서 납이, 먹는샘물에서 비소가 다량 검출됐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들 식품은 여름철에 많이

먹는 다소비 식품으로 인체에 유해한 납과 비소가 다량 검출되면 소비자의 안전에 치명적이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는 안전에 문제가 제기된 캔 음료 류·과일 통조림·먹는샘물 등 15개 업체 27종을 구입해 안전성을 시험했다.

탄산음료 8종 중 2종에서 납이 0.013~0.016ppm, 파즙음료 4종 중 3종에서 0.014~0.023ppm, 커피 및 차음료 5종 중 2종에서 0.013~0.022ppm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인 0.3ppm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과일 통조림의 경우 대상 시료 4종 중 2종에서 납이 0.031~0.055ppm 검출됐으나 이 또한 기준치인 0.3ppm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먹는샘물 6종에 대한 비소 함유량 시험에서는 비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시험검사소 화학분석팀〉

먼지털이에 분사해 자동차의 먼지 제거 및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한다.

포항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사고 제품을 입수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안전성 시험을 의뢰했다.

제품 특성상 에어졸 제품으로 볼 수 있다. '검'자 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5℃에서 용기 내 가스 압력이 11kg/cm²로 기준(8kg/cm² 이하)을 초과했고, 50℃에서 용기가 폭발하는 등 매우 위험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다른 유통업체에도 판매됐을 가능성이 높다. 업체에서는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곧바로 리콜 해야 할 것이고, 소비자는 제품을 안전하게 폐기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시험검사소 자동차·기계시험팀〉

기아는 해당 차량을 구입한 고객에게 우편 발송과 전화로 리콜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기아 정비소에 예약을 하면 곧바로 관련 부품을 교환 받을 수 있다.

〈동아일보 8. 3〉



인체 유해한 색소 용출되는 일회용 젓병 리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젓병에서 색소가 용출되어 나온다는 소비자 정보를 접수하고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용봉실업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젓병(제품명 해피월드)에서 색소가 용출돼 이를 이용하는 영·유아가 섭취할 우려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품의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요청했다.

관련 업체에서는 색소가 용출되는 젓병 2천개 중 1천8백개를 회수 또는 판매 금지시킨 상태다.

나머지 2백개도 판매장에 리콜 사실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있다.

문제의 젓병은 4월 26일 2천개를 생산해 8백개가 출고됐다. 이

가운데 5월 중순에 4백개, 7월 26일 추가로 2백개를 회수했다.

●용봉실업 : (02)474-4428, 486-2375

삼성전자, 냉방 능력 떨어지는 에어컨 15개 모델 리콜

삼성전자는 8월 6일 일부 에어컨 모델의 냉방능력이 떨어지는 결함 때문에 리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에어컨 15개 모델, 1만4천대가 냉매가스가 유출돼 냉방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무상 수리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의 생산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은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신고하면 15개 모델에 한해 공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접수처 : 1588-3366(전국 공통) 〈조선일보 8. 7〉 ㉞

자동차 먼지털이용 왁스, 온도 높아지면 폭발

승용차 뒷좌석에 넣어두었던 에어졸 형태의 자동차 먼지털이용 왁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제품은 포항의 한 유통업체에서 소비자 사은품으로 제공한 것으로 내용적 4백20mL, 수입원이 '예일'로 표시돼 있다.

상표명이 'BEST WAX CAR DUSTER'로 표시된 이 제품은

리콜 정보

기아자동차 카니발 디젤오토 3만대 리콜

기아자동차는 8월 3일부터 카니발 디젤 오토 차량을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 대상은 98년 1월부터 올해 6월 20일까지 생산된 3만4백6대로 팬벨트 조기 마모 현상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기아측은 밝혔다.

〈알림〉

독자엽서·편지로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다섯 분께 '소비자시대'에서 마련한 공중전화카드(5천원)를 보내드립니다.

- 문신유(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정수백(광주시 남구 백운동)
- 이종덕(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 류지영(전남 곡성군 석곡면)
- 김강자(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감사의 글

얼마 전 다이옥신에 오염된 사료를 먹은 벨기에산 돼지고기 파동으로 국산 돼지고기 소비가 크게 감소해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양돈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한 국소비자보호원에서 국산 돼지고기와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잔류량을 신속하게 분석·보고함으로써 국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해 주고 소비자들의 국산 돼지고기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불식시켜 준 것에 대하여

전국의 양돈 농가를 대표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양돈협회)